

“우리는 신의 손을 붙잡았다” : 폴란드

민주주의 조직하기

1980년 8월 폴란드를 뒤흔든 대파업의 중심부는 그단스크에 있는 거대한 레닌 조선소의 회의실이었다. 그곳에서 지역 내 각 공장의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들은 공장간 파업 위원회(Interfactory Strike Committee)를 설립해 발트해 연안을 따라 파업을 조직하고 퍼뜨렸다. 거의 모든 회의는 길고 치열한 논의 끝에 투표를 통해 의사결정을 했다. 기술자들은 평조합원들이 지도부의 활동 소식을 듣고 계속 신뢰할 수 있도록 카세트 테이프를 만들었다.

파업 노동자의 대표들은 폴란드의 일당 독재에 도전하지 않았다. 그들이 내건 목표는 독립적인 노동조합을 설립할 권리의 획득이었다. 하지만 파업 노동자들은 스스로 민주적으로 조직했고,

이것은 1980년대 말에 폴란드에 들어선 민주주의를 지속 가능하게 한 토양의 양분이 되었다.

비폭력 운동은 종종 민주주의가 뿌리 내리고 번성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한다. 남아공의 흑인 거주구에서 활동가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주민 위원회를 선출하도록 촉구했다. 폴란드와 남아공

연표

1970년 12월, 그단스크와 기타 발트해 연안 도시들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키다. 파업 노동자들이 정부군과 충돌하다.

1976년 9월 23일, 투옥되거나 재판을 받는 노동자의 가족을 돕기 위해 노동자 방위 위원회(Workers' Defense Committee, KOR)가 조직되다.

1980년 6월, 폴란드 지도부가 식품 물가를 대폭 인상한다고 선언하면서, 파업에 불씨를 지피다.

1980년 8월 14일, 레닌 조선소 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키다.

1980년 8월 16일, 폴란드 전역의 여러 사업장을 대표하는 파업 노동자들이 공장간 파업 위원회를 설립하다.

1980년 8월 23일, 공산당 협상단이 레닌 조선소에 도착해 파업 위원회와 회담을 시작하다.

1980년 8월 31일, 노동자들에게 정부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노조를 설립할 권리가 부여하는 합의안이 통과되다.

1980년 9월 17일, 전국적 독립 노조 '연대'가 설립되다.

1981년 12월 13일, 정부가 “전시 상황”을 선언하고 연대 노조를 금지하다.

1989년 2월 6일, 폴란드 정부가 '연대'를 포함한 원탁 회의를 소집해 폴란드의 미래를 논의하다.

1989년 6월 4일, '연대'가 자유 투표로 정부 지배에서 벗어나다.

모두 운동의 지도자들은 폴뿌리 지지에 의지했다.

비폭력 운동은 조직화는 되었지만, 상부가 하부에 명령을 내리는 군대는 아니다. 그들은 일반 대중의 자발성에 의존했다. 나치 점령기에 유대인 동포를 보호한 덴마크인들과 스스로 소금을 만들고 영국산 의류를 보이콧한 인도인들, 정부를 거부하고 흑인 거주구에서 스스로 정부 서비스를 조직한 남아공인들처럼 말이다. 비폭력 운동이 성공하려면 다수의 사람들을 동원해 함께 행동해야만 한다. 그것이 파업이든 보이콧이든 행진이든 혹은 다른 종류의 행동이든 말이다. 이것은 활기 있는 시민 사회를 만드는 데도 필요하다.

시놉시스

1980년 8월, 반트해 연안 폴란드 그단스크의 레닌 조선소 노동자들은 파업에 나섰다. 지난 수십 년간 폴란드의 노동조합들은 집권정당인 공산당의 지배를 받았고, 노동자들을 부당 대우로부터 보호하거나 임금 인상을 협상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당시 레흐 바웬사(Lech Walesa)가 이끄는 조선소 노동자들은 공산당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독립 노조를 스스로 조직할 권리를 요구했다.

첫 번째 날인 8월 14일, 노동자들은 파업이 끝날 때까지 조선소를 점거할 채비를 하고, 그단스크 주변의 다른 조선소들과 공장들에 전갈을 보냈다. 이틀 만에 파업은 20개 이상의 사업장으로 번졌고, 그들은 레닌 조선소로 대표를 보내 함께 위원회를 설립해 요구안을 작성했다. 1970년대에 폭력적으로 변질되어 실패한 파업들에서 교훈을 얻은 그들은 규율을 지키고, 파업을 전파해 국가의 새로운 일부로 성장시켰다. 정권은 커져가는 압력 속에서 힘을 잃었다. 정부 관료들은 노동자 위원회와 회담에 응했고 결국 요구안의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파업은 8월 31일에 끝났고, 폴란드 노동자들은 유럽 공산권 내 최초의 자유 노조인 ‘연대(Solidarity)’ 설립에 착수한다.

안나 발렌티노비츠

레닌 조선소의 파업에 불씨를 지핀 것은 1980년 8월 7일에 벌어진 기중기 조종수 안나 발렌티노비츠(Anna Walentynowicz)의 해고였다. 발렌티노비츠는 거의 공산당이 폴란드를 지배한 기간 만큼이나 오래 조선소에서 일해왔다. 그녀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할 것이라는 공산당의 말을 듣고 당에 가입했다. 하지만 그들은 일반 노동자들의 발언권과 단결권을 부정했다. 이에 환멸을 느낀 그녀는 당 회의에서 노동자들의 입장을 나서서 대변했고, 그로 인해 조선소 관리진에게 눈엣가시가 되어 결국 해고된다.

일주일 뒤, 조선소로 향하는 전차들에 탄 노동자들의 손에 활동가들이 전단지를 쥐어 줬다. 전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안나 발렌티노비츠는 다른 사람들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업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저항하지 못하면, 할당량 증가나 안전 규정 위반, 초과 근무 강요에 관해 나서서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폴란드 노동자들이 독립 노조를 설립할 권리를 얻어내는 것으로 종료된 파업은 한 여성에 대한 변호에서 시작되었다.

〈논의 주제〉

1. 운동의 형식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정치적 결과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민주적인 정치적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것이 일어난 사례가 존재할까? 비폭력 행동에 기반한 운동은 게릴라전이나 테러리즘에 기반한 운동보다 지속 가능한 민주적 체제를 낳을 가능성이 더 높을까? 왜 그럴까, 혹은 왜 그렇지 않을까?
2. 1980년 8월 폴란드에서 일어난 파업의 초기에 일부 지도자들은 자유 선거와 모든 검열의 폐지를 요구안에 추가하자고 주장했다. 이것은 공산당 독재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었다. 파업 위원회가 이 정치적 요구들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면 투쟁은 어떻게 다르게 전개되었을까? 이 요구들을 넣지 않은 것은 실수였을까, 아니면 현명한 선택이었을까?
3. 산업 노동자들은 비폭력 운동의 많은 사례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노동자들과 노조들은 비폭력 행동에서 어떻게 그렇게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 노동자들은 보유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에게는 없는 수단에는 어떤 형태의 것이 있을까?